

격동기 아픔 간직한 길... 터널 개통 이후 점차 잊혀져

너릿재 명품 옛길로

삼 역사와 애환



광주~화순간을 오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했던 너릿재(해발 240m). 1971년 너릿재 터널이 뚫리기 전까지 화순 주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유서깊은 길이었다. 농수로 유배를 가던 조광조 선생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이 길을 넘었다. 이후 새로운 국도가 개설되며 잊혀졌던 너릿재 옛길이 걷기와 자전거 타기에 적합한 '명품 힐링 숲길'로 변모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너릿재에 얽힌 역사와 애환, 화순군 너릿재 옛길복원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광주와 전남 동부권 잇는 고개=너릿재 지명 유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옛 문헌에 나오는 너릿재의 한자식 이름은 '판치(板峙)이다. 고개를 오르내리는 비탈길이 좁고 험하지만 정상부는 비교적 넓고 평탄한 데서 유래했다는 것이다. 1757년 제작된 '여지도서(輿地圖書) 화순편에 "북쪽으로 광주와의 경계에 있는 판치까지 가는 길이 9리이다"(北距光州界板峙路九里)라고 기록돼 있다.

반면 향토사연구가 윤여정 나주시 세무과장은 지난 2009년 펴낸 '대한민국 행정지명'에서 넓은 고개(널+재)가 널재→널이재→너릿재로 변화한 것을, 한자로 널(板)·재(峙)를 취했다고 설명한다.

또 하나의 설명은 너릿재를 넘던 사람들이 산적이나 도둑들에게 죽임을 당해 널(널판지)에 실려 '너릿너릿' 내려온다는 데서 유래했다고도 얘기한다.

광주와 화순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

광주~화순 연결 유일한 통로 동학혁명, 5·18 등 흔적 남아

사계절 색다른 풍경 걷기 제척郡, 내년부터 옛길 조성 추진

너릿재는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동학농민혁명과 한국전쟁, 5·18 등 근·현대 격동기마다 역사적인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1895년 동학농민군이 너릿재 입구에서 집단 학살당했고, 1907년 농주 출신 의병장 양회일이 이끄는 의병부대가 광주를 공략하려다 이곳에 매복한 관군에 의해 희생됐다.

또 1946년 8월 해방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로 가려던 화순탄광 광부들이 이곳에서 미군과 경찰의 총탄을 받았고, 1980년 5월 22일에는 너릿재를 봉쇄한 7공수부대가 화순에서 광주로 오던 2.5 트럭에 총격을 가했다.

너릿재 옛길 입구에는 5·18 항쟁 표지석과 김준태 시인의 '화순 그대 영원한 참세상의 고향이여'라는 제목의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잊지말자 기억하자/ 불의의 무리들이 쳐들어와/ 해와 달마저 피투성이로/ 뒹굴던, 그러나 손에 손잡고/ 불기둥처럼 타오르던/ 1980년 5월 의향 화순을!..."이라는



너릿재 옛길을 찾은 탐방객들이 고개마루 전망대에 자리한 300여년생 느티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곳 전망대에서는 너릿재 터널을 지나 화순읍으로 향하는 국도 22호선이 시원스레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시구가 새겨져 있다.

조선시대에 소로에 불과했던 너릿재 길은 일제 강점기에 신작로로 확장됐다. 이후 1971년과 1992년 너릿재 터널이 잇따라 개통됨에 따라 산을 넘어야 하는 옛길은 잊혀졌다. 이어 지난 2014년 11월 동구 내남동~화순읍 대리구간 8차선 도로가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너릿재 터널'을 지나는 국도 22호선 차량 통행량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4.3km 길이의 옛길 걸으며 힐링=너릿재 옛길은 광주시 동구 자원동에서 선교마을과 화순읍 이십곡리를 연결하는 4.3

km 길이의 호젓한 산길이다. 광주 구간이 2.3km, 화순 구간이 2km이다.

광주 구간의 경우 동구청이 '너릿재 명품 숲길' 조성을 마치고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지정해 지난 6월 1일부터 차량 통행을 금지했다. 화순군도 내년부터 '너릿재 옛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너릿재 옛길은 차량 통행이 끊기며 '힐링'을 찾는 탐방객들의 걷기 및 자전거 마니아들의 라이딩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곳은 도로변에 아름드리 벚나무가 식재돼 있어 봄철이면 벚꽃터널을 이룬다. 벚나무 외에도 편백나무와 단풍나무, 소

나무 등이 울창해 사계절 색다른 풍경을 선사하고 한낮에도 땀발을 막아준다. 길을 걷다 보면 바람에 실려오는 매미 소리가 귀에 청량감을 더해주고, 간혹 다람쥐와 두꺼비가 길을 가로질러 간다. 광주와 화순 경계인 고갯마루에는 광주와 화순의 상생(相生)을 상징하듯 300여년생 느티나무 두 그루가 나란히 서있어 이채롭다. 한편 너릿재 옛길은 지난 2012년 산림청과 생명의 숲 주관의 '제13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송기동기자 song@ /화순=조성수기자 css@

운주사 석불석탑,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본격 추진

이달중 문화재청에 신청서 제출

'천불천탑(千佛千塔)과 '와불(臥佛)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화순 운주사(運舟寺) 석불석탑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전남도와 화순군은 "운주사 석불석탑(석불 101구, 석탑 22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이달 중 잠정목록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 잠정목록 신청서를 오는 11월까지 유네스코에 제출한다. 문화재청과 전남도, 화순군은 이후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구성하고 종합학술조사, 국외 비교 연구를 거쳐 정식으로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낼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와 화순군은 지난 2005년부터 운주사 석불석탑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해왔다. 화순군 관계자는 "운주사 석불석탑은



독특성, 군집성, 조형성 등에서 세계적 가치를 보유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유산 등재가 이뤄지기까지 앞으로 5~6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운주사는 화순군 도암면 대조리 천불산에 있는 사찰로 보물 제796호인 9층 석탑과 보물 제797호인 석조불감, 보물 제798

호인 원형다층석탑, 와불 등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전남 도내에는 화순 고인돌이 유일하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서남해안 갯벌, 필암서원, 선암사·대흥사, 낙안읍성, 신안·영광 열전, 강진 정자요지, 해남 공룡 화석지 등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선정됐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장성 모든 벼 재배농가 대상 공동방제

장성군이 벼 재배농가의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및 쌀 안정생산을 위해 관내 벼 전 재면적을 대상으로 공동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비를 지원해 실시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여겨진다.

장성군은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27일 시작해 15일까지 11개 읍·면 4000ha를 대상으로 공동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장성지역의 경우 1ha 미만의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76%(3400명)를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은 고령 농업인이나 값비싼 방제기 구입이 어려운 영세농여서 병해충 방제작업에 적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소규모 벼 농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병해충 피해문제를 해결하고자 방제효율이 높은 생력형 농약을 사용해 공동 방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해마다 벼 병해충에 의한 피해율은 평균 13% 정도로, 이를 장성지역에 적용할 경우 50억원의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적기 공동 방제사업을 통해 피해율을 5% 이하로 낮추면 30억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민선 6기 들어 맞춤형 비료와 벼 육묘상자 처리제, 공동방제, 액상 규산 공급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벼농사 사업을 추진해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성군 전국 첫 보건지소 팀장제 도입

장성군이 전국 최초로 보건지소 팀장제도를 도입했다.

10일 장성군에 따르면 현재 장성읍에 위치한 보건소를 비롯해 각 면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 등 총 20개의 공공 보건기관이 주민 건강관리와 1차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소와 멀리 떨어진 보건지소에는 행정경험이 전무하고 군복무 대체로 주민 진료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공중보건 의사가 보건지소장 역할을 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책임자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 중인 6급 무보직 직원이 총 18명으로 별도의 직함이

없어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근무분위기가 다소 침체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으로 보건사업과 행정경험이 풍부한 무보직 6급 직원을 보건지소 팀장으로 배치해 행정업무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여, 주민밀착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보직 해소에 기여할은 물론 순환보직 경로가 만들어져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화순~광주 동구 제1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 대회

2015년 8월 15일(토)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 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 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지원2동)
코 스 | 너릿재 옛길 주차장~너릿재~화순 소아르 갤러리
종 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 가 비 | 30,000원
기 념 품 | 타이즈
접수인원 | 선착순 1,000명(입금기준)

주최 (주)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 마라톤세상
주관 마라톤세상
후원 화순군